

등골 소싹 추리·공포 소설 더위 짝~

‘모든 죽은 것’·‘내가 잠들기 전에’ 등 서점가 인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당신은 누구인가, 또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무더위에는 역시 공포와 추리소설이다. 무서운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치거나 오싹해 실제로 추위를 느낀다고 한다. 공포와 추위에 따른 반응이 교감신경계를 통해 유사한 생리적 반응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맞아 추운 기분이 들어 오싹하고, 소름이 돋고, 온 몸이 차가워지는 공포·추리 소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심해! 등 뒤를 노린다=공포 소설의 단골 주제는 연쇄살인. 올해도 연쇄살인을 다룬 소설이 많다. 존 코넬리의 ‘모든 죽은 것’(오존하우스·1만4800원)은 메스를 휘둘러 희생자의 얼굴을 수집하는 연쇄살인범이 등장한다. 살인범에 희생된 아내와 딸의 복수를 위해 범인 추적에 나서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셀리 프레이돈트의 ‘스도쿠 살인 시간’(밀리언하우스·1만2000원)은 천재 수학자인 케이트 맥도날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리소설 시리즈. 폐쇄적인 시골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도쿠 퍼즐을 단서로 사건의 실마리가 이어진다.

기시 유스케의 ‘악의 교전1·2’(느



낌이 있는 책·각권 1만5000원)는 사이코패스 교사의 광기어린 살인을 그리며 인간의 본성을 묻는다.

소설 속 학교는 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집단따돌림, 체벌, 폭력, 성추행 등으로 얼룩져 있다. 주인공 하스미를 내세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악의 실체를 이야기한다. 섬뜩한 캐릭터, 절묘한 구성, 세밀한 심리묘사로 팽팽한 긴장감을 준다.

▲범인은 누구?=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는 추리 소설도 여름이 제철이다. 교고쿠 나쓰히코의 ‘죽지 그 래’(자음과모음 1만3000원)는 방대한 지식과 독특한 세계관이 교차하는 수작이다.

천사 같이 착한 성격의 아사미가 갑자기 살해되고, 우연히 생전의 그녀와 만났던 청년 겐야는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무더위를 식혀줄 ‘스릴 만점 공포·추리소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마이클 코넬리의 소설을 영화화 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의 한 장면.

던진다.

S.J. 왓슨의 ‘내가 잠들기 전에’(랜덤하우스코리아·1만3800원)는 참신한 줄거리와 반전이 돋보인다. 이미 37개국에서 번역됐고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로 했다.

크리스틴은 침대에 낫선 남자와 누운 채 아침에 눈을 뜬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라며 결혼한 지 이미 20년이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자신의 일기장에서 ‘벤을 믿지 마라’는 글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진다.

미치오 슈스케의 ‘까마귀의 엄지’(문학동네·1만2000원)는 제6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했고

나오키상,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후보에도 오른 추리소설. 대규모 사기극을 둘러싼 ‘부처’들의 이야기로, 젊을 때 사채 조직의 밑에 걸려 가족을 잃은 청년 남자 다케자와와 데쓰가 주인공이다.

다케자와를 쫓는 사채조직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자 ‘부처 5인방’은 뒷골목 노하우를 모두 동원해 사채업자를 상대로 대형 사기극을 벌인다.

이 밖에도 ‘수상한 라트비아인’(열린책들·9800원) ‘유다의 창’(로크미디어·1만1000원) ‘완전범죄에 고양이는 몇 마리 필요한가’(폴라북스·1만35000원) 등도 읽을만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길고양이 엄마 화열이, 상처도 슬픔도 함께

‘도둑팽이 공주’

황인숙 지음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고 노래한 시인 황인숙이 고양이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을 냈다.

그녀의 첫 장편소설 ‘도둑팽이 공주’는 동네에 버려진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고양이 엄마 스무살 화열이의 이야기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사는 화열이는 동네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도 길고양이들에게 먹이 주는 일을 빼먹지 않는다.

소설은 고양이 아비를 입양시키는 이야기와 화열이의 어린 시절을 교차시켜 보여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차례로 버려진 화열이의 아픈 과거가 드러날수록 화열이와 고양이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이 드러난다. 버려진 고양이들을 보살피면서 자신 또한 그들로부터 버려진 상처를 위로받고 있었던 것이다.

또 고양이 애호가인 혜조 언니, 인터넷 커뮤니티 인기 스타 전설 아저씨, 반지하방에서 두 아이를 씹씩하게 키워낸 바리이모님, 인터넷 소꿉물을 하는 양아증 언니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저자는 실제로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동네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양문명 부상에 대한 명쾌한 해답

‘시빌라이제이션’

니얼 퍼거슨 지음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의 책 ‘시빌라이제이션’은 동양이 왜 서양문명 보다 뒤졌을까에 대한 해답을 던져준다.

지난 1411년 명나라는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톈진에서 항저우에 이르는 대운하 수리 작업도 진행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유럽은 흑사병 참사에서 막 벗어났지만 공중위생은 여전히 열악했다. 백년 전쟁을 비롯한 크고작은 전쟁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 책은 이후 600년 동안 서양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켜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저자가 밝힌 서양이 나머지 세계와 차별화를 이룬 요인으로 ▲경쟁 ▲과학 ▲재산권 ▲의학 ▲소비 ▲직업 등 여섯 가지를 꼽고 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탓에 군사,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고 17세기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주요 혁신이 모두 서유럽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유럽의 과학혁명에 교회와 국가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이슬람교에서는 종교에 무한한 권한을 부여한 탓에 종교와 과학적 진보를 조화시키기 못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서양 문명의 부상을 이끌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서양이 왜 부상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서양이 왜 몰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책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21세기북스·2만2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꼭!

‘책이 꿈지락 꿈지락’

김성범 지음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 김성범씨가 어린이 그림책 ‘책이 꿈지락꿈지락’을 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게임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책 속에서 꿈지락거리는 백설공주 등 수많은 주인공을 발견하면서 신나는 일이 벌어진다. 책 속에서 나온 백설공주와 난쟁이, 흥부네 아이들, 각종 동물들과 신나게 놀던 밤에는 이번에는 책 속으로 직접 들어가 잠자는 도깨

비의 방망이를 훔쳐 나오기도 한다. 환상적인 이야기 전개와 함께 지난

2008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이경국씨의 그림도 돋보인다.

김씨는 곡성 출신으로 도깨비를 소재로 한 책 ‘도깨비살’, ‘숨쉬는 책, 무익조’ 등의 동화책과 창작동요 음반 ‘도깨비살’을 내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 운동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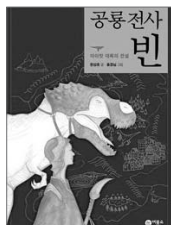
〈미래아이·9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되살아난 공룡, 인간을 만나다

‘공룡 전사 빈’

한상호 지음



생물학자 월슨은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인형기-공룡기-기차기-곤충기’로 분류했을만큼 공룡은 아이들의 꿈이다. 2008년 3부작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을 발표했던 EBS 한상호 PD가 이번에는 공룡을 소재로 한 판타지 동화 ‘공룡 전사 빈’을 냈다.

대홍수 이후 3000여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이 이야기의 배경. 얼마 없이 자란 외로운 소년 빈은 ‘공룡 전사’가 되었다는 꿈을 키운다.

‘공룡 전사’란 공룡을 길들이는 조

련사인데, 약한 체격을 타고난 빈은 공룡학교 입학시험에서부터 좌절을 맞본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로운 공룡 ‘타로’와 짝을 이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공룡 배틀의 영웅이 된다.

작가는 빈과 타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공룡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을 곁들여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비룡소·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고통·자연... 333개의 이야기 담아

‘시간의 목소리’

에두아르노 갈레아노 지음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비관적 지식인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인 에두아르노 갈레아노의 새 책 ‘시간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투파이 출신인 갈레아노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비극적 역사를 서사시적으로 서술한 ‘불의 기억’ 3부작과 ‘라틴 아메리카의 절개된 혈맥’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 발간된 ‘시간의 목소리’ 역시 그의 이야기 솜씨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페이지가 되지 않는 짧은 글들이지만, 그 곳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소리의 울림은 깊고도 넓다.

책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333개. 축구공을 만드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노동력’은 8줄의 짧은 글이지만 읽고 나면 정곡을 찌르는 그의 글에 가슴이 싸 해진다. 두더지에게 터널을 뚫는 법을 배우고, 새들에게 집 짓는 법을 배웠다면, ‘누구에게서 이웃을 고향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법을 배웠을까’라고 되묻는 ‘첫수업’ 등 굵직한 만한 글들이 실려 있다.

책에는 우정, 존엄성, 사랑, 고통 등 세상 살면서 새와 나무, 물 등 자연과 아메리카의 역사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탄탄한 이야기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어, 읽는 재미가 그만이다.

〈휴머니티스·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는다=문화원전 ‘나비’에 연재된 ‘비평 테이블’ 코너의 좌담을 묶은 책이다. 짧은 문학평론가 박진·김남혁·장성규씨가 참여해 베르나르 베르베르, 무라카미 하루키, 김훈, 신경숙 김영하 등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최근 문학상 수상작의 변화된 경향, 새로 등장한 청소년문학 장르까지 출판계의 새롭게 두드러지는 현상도 곁들였다.

〈자음과모음·1만7500원〉

▲비탈진 음지=소설가 조정래가 지난 1973년 처음 발표한 동명의 중편소설을 다시 개작했다. 발표 당시 원고에다 200여 매에 이르는 원고를 새로 써서 더했다. 소설은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로 농촌 사람들이 너도나도 ‘무작정 상경’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가난한 농사꾼이던 복천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두 자녀와 함께 서울로 이반도주하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해냄·1만2800원〉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현재 가톨릭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강운재가 세계사 속 뜨거운 과학 논쟁을 정리했다.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연금술사 뉴턴, 유전자 변형식품, 기후변화, 원자력 에너지 등 과학사의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쟁점들이 담겼다. 과학 그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망을 폭넓게 조망해 과학의 참모습에 다가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배배삼국지=MBC 라디오 ‘배배삼국지’의 내용이 오디오북으로 묶였다. ‘배배삼국지’의 고전열전-삼국지는 지난해 한국PD대상에서 라디오 부문 실험정신상을 수상했으며, 2010~2011년 iMBC 프로그램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인기 프로그램. 부록으로 구성된 2장의 CD에는 방송 3개월 분량을 재편집한 오디오 파일이 수록되어 있다.

▲금·토·일 해외여행=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대한 길고 알차게 즐기는 해외여행의 노하우를 담고 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묵을 지 알려준다.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243일 동안 즐길 수 있는 베스트 플랜 48가지를 소개한다. 필리핀, 태국, 일본, 중국 등 단기간에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가 다채롭다.

〈예담·1만6000원〉

▲토성의 고리=W. G. 제발트의 대표작. 2001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기까지 네 편의 소설을 발표한 제발트는 죽음 이후 날이 갈수록 폭넓은 독자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가 영국 동부지방을 여행한 후 쓴 문화고고학 여행기 같은 소설, 파괴돼 버린 과거의 유물을 접하며 인간 문명의 역사를 돌아본다.

〈창비·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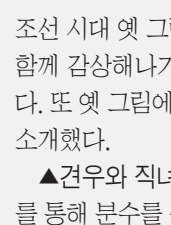
▲기분을 말해봐=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이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책을 소개했다. 지루함, 행복, 슬픔, 외로움, 부끄러움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하나씩 나열한 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웅진주니어·1만1000원〉

▲세 친구의 모험=알을 못 낚는 수탉 프란츠, 먹는 걸 안 좋아하는 돼지 발데마르, 심심한 생쥐 조니 등 농장의 세 친구의 모험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넓고 큰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았다. 이들은 생김새도, 생활방식도 서로 다르지만 변함없는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마법사의 사계절=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첫 클래식 음악 동화



를 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등 다양한 클래식을 동화의 형식을 빌려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 동화에 등장하는 음악은 CD에 담아 책과 함께 준다.

〈도토리·1만7000원〉

▲신현림의 옛 그림과 뛰노는 동시 놀이터=시인 신현림이 우리의 옛 그림에 대한 감상을 동시로 담았다. 초등학교이 꼭 알아야 할 교과서에 수록된 조선 시대 옛 그림 22점, 저자가 창작한 동시와 함께 감상해나가도록 구성된 색다른 동시집이다. 또 옛 그림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살림어린이·1만800원〉

▲견우와 직녀가 분수 때문에 싸웠대=동화를 통해 분수를 설명해 주는 초등1·2학년 수학 동화 5번째 시리즈. 동화작가 이안이 전래동화 속 주인공을 등장시켜 수학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 공쥐와 꿀쥐가 나와 분자와 분모의 개념을 알려주고, 실제 계산법도 소개한다.

〈과학동아북스·8800원〉

어린이 책꽂이